

작년 기업 매출액 ↑ · 순이익 ↓

통계청,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 전년비 17.4% ↑ · 전년비 11.3% ↓

지난해 기업매출액 1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지만,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100% 이상의 순이익 상승 기저효과와 더불어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등 각종 비용상승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국내 기업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197조 3000억원으로 전년(222조3000억원) 대비 11.3%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업, 건설업 등에서 감소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

파로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면서 화학제품, 1차금속, 전자부품 등 제조업 감소가 두드러진 것이 전체 감소를 이끌었다.

지난 2021년 국내 기업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222조4000억원으로 전년(97조7000억원) 대비 127.6% 증가한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기업의 매출액은 3238조원으로 전년 대비 17.4% 증가했다. 이는 2008년 19.2% 증가한 이래 최대 증가폭이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도 전년 대비 14.3% 증가했다. 전기가스업(49.7%), 운수·창고업(32.9%), 숙박 및 음식점업(26.2%), 건설업(17.8%), 예술스포츠업(17.3%), 도소매업(16.4%) 등에서

증가했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412억원으로 전년(2110조원)대비 14.3% 늘었다. 전기가스업(51.8%), 운수·창고업(28.0%), 숙박 및 음식점업(26.6%) 등에서 증가했다.

정희상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장은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1년 전에 순이익이 100% 넘게 증가한 부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순이익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기업수와 종사자수도 늘었다. 조사대상 기업수는 1만3825개로 전년(1만3448개) 대비 2.8%(377개) 증가했다. 제조업은 6235개로 전년(6150개) 대비 1.4% 증가했고, 금융보험업(8.4%), 정

보통신업(6.3%), 도소매업(6.0%) 등에서 증가

종사자수는 498만1000명으로 전년(491만7000명) 대비 1.3% 증가했다. 상용근로자수는 433만4000명으로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0.7%(2만9000명) 증가했다. 다만 상용근로자 비중은 전체 종사자수의 87.0%로 전년(87.6%) 대비 0.6%포인트(p) 감소했다.

국내·외 자회사 보유 기업은 6164개로 전년 대비(6006개) 2.6% 증가했으나 조사대상 전체 기업 대비 44.6% 비중은 전년 대비 0.1%p 감소했다. 국내 자회사를 보유한 기업은 4747개로 전년 대비 3.2%, 국외 자회사 보유 기업은 3394개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뉴시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와 송실대학교(총장 장범식)는 지난 15일 송실대학교에서 저탄소 식생활 확산과 농수산식품 분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맞손'

aT, 송실대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 · 미래인재 육성 협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와 송실대학교(총장 장범식)는 지난 15일 송실대학교에서 저탄소 식생활 확산과 농수산식품 분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향후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 먹거리 탄소 중립 등 ESG 가치 확산 △농수산식품 분야 미래인재 육성과 청년취·창업 역량 강화 협력 △농수산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기술·정보 교류 △안전한 공공급식으로 학생건강 제고 급식산업 활성화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송실대학교의 1만 7000여 학생과 임직원들이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에 동참

하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실대의 교훈인 진리와 봉사의 정신을 담아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 실천의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저탄소 식생활 확산에 적극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UN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공사는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도입해 2021년부터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35개국 612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 수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발전 방안 모색

전북도 수소위원회 개최

전북도는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2023년 '전라북도 수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18일 도청에서 개최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전라북도 수소위원회는 '전라북도 수소산업 및 수소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관련 시책의 수립·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수소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도 미래산업국장)과 수소기업, 대학, 연구·공공기관, 안전분야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예타급 대형사업 기획안에 대한 논의와 사업기획 방향에 대한 자문, 그리고 수소특화 국가



18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2023년 '전라북도 수소위원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 수소특화단지 지정·육성 등 향후 전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흥기 부위원장은 "수소산업은 탄소중립과 연계된 신산업으로, 아직 인프라는 충분하지 않지만 불확실했던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법령·제도가 단계별로 정비되고 있는 단계,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는 정부와 지자체의 전문성 있는 정책발굴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 역할을 강조했다.

위원들의 의견과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 상호간의 지속적인 자문을 통해 수정·보완 후 전북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택림 도 미래산업국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등 수소경제 이행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우리도가 신산업인 수소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며, "전라북도 수소위원회가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바이오진흥원,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 기능추가 용역 착수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 원장 이은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전복센터)는 전북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이 개발 완료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4개월에 걸쳐 기능추가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북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은 시·

군단위 지역 먹거리의 생산·가공·안전·유통·소비 등에 대한 일원화 관리 체계 구축 및 센터 간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번 기능추가 용역은 로컬푸드 직매장 통합 관리 시스템, 어린이집·임산부 친화적 꾸러미 등에 적용할 웹소

핑몰 고도화를 핵심 내용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써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은 지역 먹거리 수요처 종합관리, 수발주, 배송 및 정산, 기획생산 체계 등이 총망라된 통합플랫폼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욱기 기자

한편 전복센터는 기능추가 용역이 완료되는 '24년 4월 이후 14개 시군에 개발된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상용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프로그램 전담인력 역량강화, 센터 간 거래 촉진을 위한 협력 가이드라인 마련, 기초 및 광역 단위 기획생산 등을 시군센터와 공동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욱기 기자

농업유전지원 분양신청

농진청, 씨앗은행 누리집서 서류 받아 온라인 신청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다양한 농업유전지원 분양신청을 누리집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편의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지원센터에는 벼, 고추, 잡곡 등 24만여 점의 다양한 종자 지원을 보존하고 있다.

이를 식물 연구자, 육종가 등 수요자에게 분양하고 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농업유전지원을 분양받으려면 씨앗은행 누리집에서 분양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첨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선 작업으로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와 분양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에 전자 서명을 도입해 별도 첨부파일 없이 온라인

상에서 서명해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분양신청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해 농업유전지원 수요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내부 처리시스템과 연계해 분양 승인 등 행정절차를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 처리 소요 시간을 줄이는 기반을 마련했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지원센터 안병욱 센터장은 "이번 개선 작업은 식물유전지원 활용 촉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라는 정부 혁신 과제에 따라 이뤄졌다. 앞으로도 다양한 농업유전지원이 국내 관련 학계와 바이오산업 등에 원할히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